

흥국생명
GS칼텍스

“8전 8패 수모 광주서 설욕”

18~19일 영주체육관 ‘한·일 V리그 탐매치’ 개막

일본 1,2위팀 토레이·히사미츠 “정상 지키겠다”

한국과 일본 여자프로배구의 정상들끼리 맞대결을 펼치는 흥국금융가족배 한·일 V리그 탐매치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광주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흥국생명과 GS칼텍스가, 일본은 토레이 애로우즈와 히사미츠 스프링스가 참가한다. 흥국생명과 GS칼텍스는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 가진 한국 여자 배구 최강이며 토레이와 히사미츠는 일본 프로배구 1, 2위를 차지했다.

흥국생명과 GS칼텍스는 2006년, 2007년 두차례 대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8전 8패의 수모를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설욕하겠다는 각오다. 한국은 역대 경기에서 단 4세트 밖에 따내지 못했다. 한국 챔피언 흥국생명은 2006년 히사미츠에 1세트, 2007년 JT에 1세트 등 단 2세트 이기는데 그쳤다. 반면 올해 일본 V리그 준우승팀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히사미츠는 2006년, 2007년 탐매치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또한 토레이는 일본 V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히사미츠를 3-0으로 꺾고 이 대회 첫 출전의 행운을 안았다. 한편 남자부 경기는 오는 25~26일 일본 기타큐슈 시립체육관에서 열린다. 한국 1·2위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은 일본 1·2위 토레이 애로우즈와 사카이 블레이저스와 대결, 대회 3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삼성화재는 2006년과 2007년에 2승을 거둬고 현대캐피탈은 2006년 1승1패로 2위, 2007년 2승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 순위는 승률·점수득실·세트득실 순으로 정한다. 대회 상금은 남녀부 1위 각각 2만 달러, 2위 각각 1만 달러, 최우수선수 3천 달러이다.



《흥국생명 김연경》



한국여자축구 사상 최초의 실업리그인 '대교눈높이 2009 WK 리그' 개막을 앞두고 각 팀 대표 선수들이 15일 오후 축구협회에서 한 데 모여 출사표를 던진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수원시시설관리공단 김유진, 부산상무 신규영, 충남일화천마 한송이, 서울시청 아미즈 네스 김은정, 대교 캣거루스 류지은, 현대제철 레드엔젤스 한진숙. /연합뉴스

‘초중고 리그 신문’ 창간 대한축구협회 무료 배포

대한축구협회가 공부하는 축구 선수를 기치로 내건 초중고 리그를 홍보하기 위해 ‘초중고 리그 신문’을 펴낸다.

격주로 발행하는 초중고 리그 신문은 전국에서 펼쳐지는 초중고 축구 리그 소식을 명예기자들의 취재를 통해 담아낸다. 8페이지로 만들어진 초중고 리그 신문은 전국의 축구선수와 일선 지도자, 관련기관에 무료로 배포된다.

한편 축구협회는 초중고 리그에 참가하는 학교 지도자(팀당 1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매월 50만원의 ‘리그 정착 연구비’를 오는 12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女 축구선수들 “반갑다 연중리그”

20일 현대제철과 대교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여자축구 실업리그 대교눈높이 2009 WK리그 출범을 앞두고 선수들이 앞다투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현대제철과 대교, 서울시청, 충남일화, 부산상무, 수원시시설관리공단 등 6개팀 선수들은 15일 대한축구협회 5층 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갖고 리그 개막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나란히 “연중 치러지는 WK리그의 도입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업리그의 출범을 반겼다. 대교 소속 류지은은 “예전에 단일 대회로 치러질 때는 1주일에 세 경기씩 하다 보니 마지막에는 체력 문제가 노출되곤 했는데 1주일에 한 경기씩 치르면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김은정도 “계속 꾸준히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력이 향상되고 한국 여자축구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체력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대교 눈높이 WK리그’ 출범 20일 현대제철-대교 개막전

충남일화 한송이는 “예전에 단일 대회로 열릴 때도 체력이 필요했지만 연중 리그로 치러지면서 체력 싸움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 김유진은 “몸 상태나 체력 관리를 스스로 해야 하는 점이 예전과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상무 신규영은 “군인들로 이뤄진 팀으로서 리그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훈련을 많이 했고 선수 보강도 됐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좋은 성적을 내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16일(목) <미셀류 초청 MBC투어 롯데마트 오픈 2 R(13:35-MBC) > <프로야구 <대우> 삼성(18:20-MBCSPN), <LG> SK(18:10-KBSN SPORTS), <롯데> 기아(21:00-Xports), <히어로즈> 두산(21:00-SBS스포츠)



15일 스카이힐 제주골프장에서 열린 MBC투어 롯데마트 여자오픈에 참가한 위성미가 2번홀 러프에서 세컨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상욱·위창수 “무주공산을 접수하라”

PGA ‘바라이즌 헤리티지’ 출격 상위 랭크 대거 빠져 첫 승 기회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과 위창수(37. 테일러메이드)가 16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튼헤드의 하버타운 골프장(파71·6천973야드)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바라이즌 헤리티지 대회에 출전한다.

총상금 570만달러가 걸려 있는 이번 대회에는 마스터스 바로 다음 주에 열릴 휴스를 취하려는 상위 랭커들이 많이 빠져있다. 세계 랭킹 10위 이내 선수로는 폴 케이지(7위·잉글랜드), 카밀로 비에가스(10위·콜롬비아) 불만 나오고 올해 상금 순위 톱10에 드는 선수 역시 케이지(5위), 잭 존슨(6위), 더스틴

존슨(9위·이상 미국) 뿐이다. 따라서 나상욱과 위창수도 충분히 첫 우승에 도전할 만하다. 이번 시즌 9개 대회에 출전해 4차례 톱10 이내에 들었던 나상욱은 톱10 부문에서 필 미켈슨, 스티브 스트리커(이상 미국)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라 있으며 평균 타수 부문에서도 69.52타로 케니 페리, 닉 와트니(이상 미국)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출전한 5개 대회에서도 모두 25위 이내에 입상하는 등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어 선전이 기대된다. 또 2007년 이 대회에서 공동 4위에 올랐던 기분좋은 기억도 있다. 위창수 역시 6일 끝난 셀휴스턴오픈에서는 첫 통과에 실패했지만 3월에 출전한 두 차례 대회에서 공동 9위, 공동 4위의 성적을 낸 터라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부동산거래의 성공투자는

한국법률경제(주)

☎ 062-225-1688 H.010-3565-2888

※ 위치: 지산동 법원 버스정류장 앞 ※ 무료주차시설 완비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 (062) 227-9600
☎ FAX: (062) 227-9500

해기부령, 도로, 명령선 배대
현역(양가년) 3달유급 3달유급
근속(단순노루해) 무료선물
20회분 66,000원
H·P 010-6218-1249

개업·성업 안내

현대의원
서구화정동 현대@상가
정형외과, 내과, 피부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재활
의학과, 통증의학과, 피로스트레스, 신경통, 요통
☎ 062)371-8777

교보다방
북구누동동 교보생명명
커피, 녹차, 대추죽, 생화차
대표 박종임
☎ 062)526-5006

김석호의신기한비누
서구내방동 신화대학교47리 농협맞은편
다이아몬드, 아토피, 미백, 기미, 주근깨, 여드름
지성피부에 특효한 비누 미국FDA 승인
☎ 062)365-9925

우리구내식당
동구금남로2가 삼성증권15층
점심 1인 4천1천500원, 매일바우치는 3,500원
단체급식, 위탁급식, 피로전, 출장급식, 위탁급식운영
☎ 062)228-2002

도원활어도매시장
남구진월동 국민은행건너
매일신선채로 직접한양 지렁이계란
오공기품 우렁2리, 12,000원, 광어1kg 15,000원
☎ 062)673-1071

성산노인복지센터
동구대의동 동부경찰서맞은편 성산화관5층
제가정기요양 보호시책 회원수시모집 접수상담
복지관리사모집
☎ 062)222-7911

빛고을광고기획
남구봉선동 한일병원과 반석교회사이
각종간판제작, 색인팅, 조립식판넬, 컴퓨터그래픽
현수막, 차량용 케팅, 프로그래밍, 주문제작전문
☎ 062)653-3494

나한일해동검도승정본관
광산구 송정동 열린병원 맞은편
유치부, 초, 중, 고, 대학생, 일반부, 관원수시모집
도복+목표+MP4선물증정 건강·지식·리더십
☎ 062)944-7075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순해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할 분 및 제테크상담 대환영